



2017년 첫 번째 호 (통권 18호)

별마을 010-1171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성촌의집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고
가치 있는 삶을 돋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촌의집
www.sungchon.or.kr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세상으로의 외침



성촌의집 윤리경영 실천서약



우리는 성촌의집 이용 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며,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자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주체임을 분명히 알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우리는 이용 장애인에 대한 옹호자 등의, 실천가, 지원자, 지역사회와의 중재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과 열정, 과학적인 사고로 직업적 윤리와 소명감을 가진다.

우리는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금과 후원금(품) 사용, 인사와 복무,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관계 등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관계로서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책임감을 가진다.



2016년 12월 08일(목) 성촌의집은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자아실현의 주체이자 인격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본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의 주민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아 지역사회와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자적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촌의집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이 스펙이다

막춤일지 언정 댄스
파티로 굳어진 몸
을 풀어주고 운동
및 산책 등 유산소
운동을 통한 활력
업! UP!

물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개인별 질환 상담!
혈압측정 및 라운딩을
통한 매일매일
체크 업! UP!

영양

간호

몸에 좋은 건강주스와 건강식을 만들고
자신에게 맞는 영양교육을 통해
식사량 조절로 몸과 병의 무게 다운! DOWN!

건강지킴이



성춘의집 건강전도사인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는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하는 각자 고민의 날들을 보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모여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의 건강해 질 수 있을까요?

“병원을 가야해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워야 해요.”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몰랐던 건강의 다른 분야에 대해 들으면서 서로 연관성이 있고 함께 하면 시너지가 발휘되어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건강지킴이는 탄생하였다. 두동~!! 우리는 전반적 건강에 대해 가족들이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갖춰진 운동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계단이용하기, 춤, 건강한 식사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라 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래방, 볼링장, 나들이 등 일상에서도 스스로 자기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함께하는 별마을, 행복한 이야기

2016년 성촌의집 송년행사



2016년을 마무리하는 끝자락, 별마을 가족과 직원이 함께 하는 자리.

더불어, 별마을 가족들과 인연을 맺은 분들도 함께한 송년행사가 있었습니다.

별마을 가족 모두가 생각을 모아 2016년 솜씨를 뽐낸 작품 전시와 공연으로 이루어졌죠. 참석한 별마을 가족들이 뜻을 모아 각자 준비한 선물들은 송년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나눔으로 행복을 받았습니다.

별마을 가족의 2016년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2017년을 기약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6년 함께하는 별마을, 행복한 이야기를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2017년 송년행사를 기대해 주세요~

[최새롬 사회복지사]



1박 2일



물빛도시 강릉편

C
o
m
i
n
g
s
o
o
n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각자의 삶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의 날에는 별마을 가족과 직원 모두가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고자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강릉으로 Go! Go!



동해안의 광활한 바다를 보고 싶어 하는 별마을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여행지를 강릉으로 정하였습니다. 4월이라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바다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별 써부터 두근! 두근! 하네요~ㅋ

50여명의 많은 인원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45인승 버스는 기본이겠죠?ㅋ

우리는 버스의 몸을 실고 강릉으로 가서 사이다처럼 시원한 바다를 보며 마음껏 놀고 숙소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숙소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처음 먹어보는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보는 사람은 없다는 삼겹살! 탁 트인 자연을 벗 삼아 삼겹살 바비큐 파티! 오랜만에 모든 별마을 가족과 직원이 함께 어울려 맛있는 음식과 함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보따

1박 2일!

강릉으로 Go! Go!

리를 풀려고 해요. 어쩌면 모두가 즐거움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ㅋ 다음 날은 식사를 하고 바다가 보이는 아주 예쁜 카페로 이동하여 차와 빵을 마시며 여행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기념 촬영을 하여 우리의 여행을 추억으로 남기려고 해요.

우리의 ‘1박 2일 강릉편’ 기대되죠?ㅋ 60일 후 공개됩니다.

(다음 소식지를 기대해주세요~)

[태은실 사회복지사]



별마을우체통

성촌의집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성촌의집은 1952년 전쟁고아들을 위한 보육사업을 시작으로 지체장애인의 직업연계를 위한 직업재활원을 운영하여 80~90년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자립, 자립환경 구축, 욕구에 의한 서비스 선택권 강화 및 자립생활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통해 성촌의집 65년 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를 함께 있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17년 2월1일 65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성촌, 사회서비스의 기본 가치와 개념을 실천해 나가는 거주시설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촌의집과 함께 65년을 동고동락 하신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김영주 이사장님(前성촌의집 원장) 이하 성촌의집 이은주 원장과 성촌의집 발전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성촌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성촌의집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성촌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성촌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연락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인원 수 제한이 있으니 서두르세요~^^

문의 : 032)422-0573

제목: 별마을 그림일기



기분 좋은 주말이라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짹질방 생각이 절로 났다. 형들하고 직원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 4명이나 모여서 함께 동네에 있는 짹질방에 갔다. 따뜻한 불가마방 안에 있으니 땀이 많이 났다. 하지만 괜히 시원하다. 그리다 나와서 땀을 사칠 경 음료수도 사먹고 몸의 피로도 풀어보려고 안마의자도 이용했다. 역시 추운 겨울에는 짹질방이 최고인 것 같다. 나중에 또 와야겠다.



내일부터 설 명절연휴가 시작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을 기분이 좋다. 끄루 전 날 미리 집에 가서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한다. 오늘도 어느 때와 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정류장으로 갔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를 않는다. 그 때 내가 타는 버스가 왔다. 난 버스기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카드를 찍고 빈자리에 앉았다. 이 시간에는 버스에 사람이 없어서 자리에 앉아서 앉을 수 있어 좋다. 난 버스 타는 것이 좋다.



성촌의집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 2016년 한 해 열심히 일하고 알차게 보낸 가족을 투표를 통해 주는 상이라고 한다. 상과 꽃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자랑하니 잘했다며 칭찬을 해줬다. 2017년에는 언니, 동생들과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부산으로 놀러가고 싶다. 올해도 열심히 일하고 알차게 보내서 또 상을 받고 싶다.



오늘은 예전에 같이 자냈던 친구들이 손님으로 집에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바쁘게 집을 청소하고 정리했다. 빙동~하는 초인종 소리에 물을 열어보니 낮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같이 먹을 거라며 빵과 음료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집 안으로 맞이해서 다 같이 오순도순 앉아서 예전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늘은 예전 추억도 되새기고 반가운 손님들을 맞이한 행복한 날이었다.



성촌의 집 살아온 101=71!

Since 1951



51년 사회복지의 시작

1951년 故김용해 이사장께서는 송도 학익국민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시다가 자신의 자산을 출현하여 전쟁고아를 위한 송도 고아원을 설립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고아원 아이들을 길러 흥한방직에 10명을 취직을 시키기도 하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남다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송도에서 동암으로 위치를 옮겨 운영을 하던 중 1968년경 보건복지부에서 직업재활에 대한 추천과 국제직업재활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후 한국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비장애인들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연계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모험 그 자체였습니다. 삼육재활원에서 생활하던 80명의 자체 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직업연계를 위한 첫 시작을 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의 첫 직업 재활시설로의 출발이었습니다. 외원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서로의 노력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시작

우리의 자립은 먹고 살기 어려웠던 1970년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위한 노력으로 반복적인 직업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편견을 깨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인적 재활을 통해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렵게 야학을 다니면서 늦었지만 공부를 시작하였고, 취업을 위해 훈련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만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직업도 갖고, 일상생활에 대한 노력도 하고, 돈도 모으고 결혼도 하며 스스로 선택한 삶에 대한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75쌍이 결혼을 하여 독립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단지, 보호받아야 하고
장애인들은 단지, 세상과 격리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은 단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편견을 거부하였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숲을 이루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여 각자 다양한 지역으로 나가 살게 되었고 2000년대부터 지체장애인들의 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삶에 대한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시설에서의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그들이 삶은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주체자로써 이용가족이 선택한 삶에 주인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이곳에서 보내왔고 이제는 중·장년이 되어 성촌의집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이용가족의 삶에 폭넓은 인생의 대한 이해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성촌의집은 노력하며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밀하게! 워크하게!

나비가되어 훨~ 훨~ 나아가리라~



어느덧 성촌에 입사한지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적응하기도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올해는 제 자신을 성장시켜나가고 싶습니다. 먼저,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해 체력을 기르려고 합니다. 식단조절, 개인운동을 통해 체중감량과 근력을 키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교육 및 내·외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여 가족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모임, 동아리에 참여하고 직원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팀 분위기가 고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균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행정지원팀 사무원 장아름입니다. 성촌의집 살림을 잘 꾸려나가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2017년에는 열심히 공부하여 회계분야 및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회계업무 분야 및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 성촌의집의 살림살이를 보다 더 알차고 아무지게 꾸려나가는 살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촌의집 모든 직원과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지원팀”이란 타이틀에 걸 맞는 팀원이 되도록 2017년 성촌의집과 함께 성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아름 사무원]



성촌에 입사한지 6개월 차 새내기 영양사입니다. 올 한해 목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장애인과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가족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저를 고민하게 합니다.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지름길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신메뉴 개발을 하여 메뉴위원회에서 가족들과 신메뉴 품평회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식단 기대해주세요~ 성촌의 영양사로서 고민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하여 올 한해도 부족한 점을 조금씩 채워갈 수 있도록 성장하겠습니다.

[장연희 영양사]

별마을 메모리즈



2017년 성촌의집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까요? 사업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풀고 신청서 작성 통해 원하는 사업에 참여도 해요~

음..5??, 음..나비??, 음..안보여요~;; 우리는 매년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지킵니다. 평상 시 TV를 가까이 보지 않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ㅋ



철판 햄버거 스테이크! 삼겹살 구이!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흐르지 않나요?
성촌의집 식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 엎구리! 아~ 허벅지! 아~ 허리! 직원들의 몸은 아프지만 요가를 통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만두, 인절미 등을 만들어 다 같이 만들어 맛있게 먹었답니다. 역시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제일인 것 같아요~^^

💌 태양봉사단 | 2016년 12월 24일(토)

Merry Christmas!! 가족과 때로는 연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지만 별마을 가족들을 위해 멋진 크리스마스를 선물해주신 태양봉사단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동그라미봉사단 | 2017년 02월 12일(일)

김, 햄, 계란, 단무지, 밤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
는 김밥 동그라미봉사단과 함께한 김밥만들기.. 모두 오손도손 함께하여
더 재밌고 맛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도란도란봉사단 | 2017년 02월 14일(화)

도란도란봉사단과의 첫 만남! 노래, 연주, 춤 등 다양하고 멋진 공연
을 별마을 가족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꿈과 희망
이 가득한 콘서트 기대됩니다~^^



행복한 동행



💌 대우 휴트니스 나눔회 | 2017년 02월 18일(토)

건강미 넘치는 대우 휴트니스 나눔회! 운동전문가와 함께한 운동이라
재미와 건강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력봉사를 통해 깨끗
한 별마을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 봐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 17

♥ 리치펌킨헤어

리치펌킨헤어에게 '성촌의집'이란?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성촌의집(이용자)과의 추억은?

예전에 다른 곳에서 미용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촌의집 이웃들이 오면 그때의 마음이 문득 문득 생각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촌의집에 하고 싶은 말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성촌의집이 같은 동네 이웃으로 계속 같이 살 아갔으면 좋겠고 리치펌킨헤어도 성촌의집 이웃들이 찾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해드리고 멋있고 예쁜 헤어스타일을 해드릴 테니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아저씨는 지역사회에서
뒤에서 묵묵히 성촌의집에
도움을 주시는 곳을 찾아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 13번길 21

♥ 태영청과

태영청과에게 '성촌의집'이란?

오랜 시간동안 성촌의집을 알고 지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과 직원들의 얼굴을 가게 앞에서 오고 가는 길에 만날 때 마다 익숙합니다. 지금은 같은 동네 사는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기억에 남는 성촌의집(이용자)과의 추억은?

장사를 하다 보면 가끔씩 성촌의집에 살고 있는 이용자들이 과일을 사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일을 열심히 보면서 어떤 과일이 맛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하는 대화를 할 때 보면 정말로 거짓이 없고 순수하여 더 신경을 써서 잘해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성촌의집에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도 같은 주민이자 이웃으로 함께하고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자, 직원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습관~ 행복한 나눔^^

피겨선수 김연아가 필리핀 구호기금으로 10만달러를 기부하고 배우 하지원이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1천권의 책을 기증하였으며 배우 한효주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영화자막해설 녹음을 하는 등 유명인들의 나눔 소식이 연일화제입니다.

우리들도 유명인들처럼 나눔 실천 어렵지 않아요~

기존의 있는 대형 청소기 1대, 가정용 청소기 1대, 성촌의집 가족들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기에는 청소기도 부족하고 무거워 사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성촌의집 가족에게 성능 좋은 청소기를 후원해주세요. 진공청소기처럼 빠른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물품후원 시 해당되는 가격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이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좋은 일도 하고 연말에는 후원물품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똑똑한 재테크 누려보세요~~



쌩쌩한 가정용 청소기 7대!!

별마을 이웃사촌



♥ 봉사활동이 처음에는 재미없고 귀찮고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색해서 눈치도 보이고 했지만 막상 형님, 누님(성촌의집 가족)들과 얘기도 나누고 함께 어울리면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특히, 함께 퍼즐도 맞추고 운동한 것, 동물원에 갔다온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더 힘이 난 것 같습니다.

다시 성촌의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자원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성촌의집에 가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강민형 자원봉사자]



♥ 2015년 2월부터 성촌의집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은 시간만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에는 매달 봉사활동을 나가며 어떤 때는 성촌의집 가족분들 보다 더 즐기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성촌의집 가족분들과 함께 있다가 웃는 제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꽃이 핍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매번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촌의집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더욱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우 자원봉사자]

▣ 후원자 명단 (2016.11.21-2017.02.28)

+ 신규후원자를 소개합니다 +

김영준, 박현철, 이덕재, 이선, 이준희, 장연희, 정현주

+ 비지정후원금 +

개인 : 고종원, 김덕진(건강길약국), 김수진, 김용애, 김현보, 박점숙, 신진자, 유계월, 이향란, 윤창호, 임명선, 유은찬, 유효윤, 장아름, 정민영, 조성란, 태은실
단체 : 교촌에프앤비, 인천중앙교회, 오내찬구성폭력상담소, 익산유압, 인천농산물주식회사

CMS : 김김인수, 김현수, 김현경, 박경진, 박미정, 변문수, 소형순, 손대원, 이수일, 이은주(부평우체국), 이은주(성촌의집), 이구형, 정찬식, 정민호, 조광매, 조근태, 조성순, 조성숙, 정금자

+ 지정후원금

이용자결연후원금 : 유정운, 이은주, 임미정

+ 후원물품

개인 : 강인성(선물세트), 장아름(차량주유등), 장연희(주방용품), 김기철(구두)
단체 : 보드랑장식(도배지), 부평감리교회(쌀), 동암신용협동조합(빵, 우유), 서산농협(한과), 사랑나눔봉사단(중식식재료), 시흥현대모터스(차량수리·점검), 크롬(빵류), 차부딱지(떡), 까레콩케이크삼산점(케이크), 카렉스(차량용품), 한빛케어(휠체어수리), 한국세탁업중앙회인천지부(의복수선), 한국희망집짓기 태양봉사단(중식식재료)

+ 모금함 후원

- 부평우체국(동암우체국), 부평6동우체국, 부평공단우체국, 부평대로우체국, 부평현대아파트우체국, 북인천우체국, 산곡2동우체국, 인천갈산동우체국, 인천부개동우체국, 인천남산동우체국)
- 24시콩나물국밥, 라성약국, 벤엘약국, 부성해물탕, 석바위어린이책, 이천쌀밥설악추어탕, 치우차이, 촐집보쌈, 동암중앙치과

▣ 자원봉사자 명단 (2016.11.21-2017.02.28)

개인

서태환, 김성현, 김사윤, 조현우, 이영현, 문영전, 김민지, 하다영, 김이슬, 방혜지, 강민재, 노현우, 이성빈, 김도윤, 강민형

신규단체

대우蕙트니스나눔회: 이용자프로그램지원

김시현 관장, 조형준, 김주희, 장형택, 방희성, 조현진, 김동현, 강찬양, 유혜린, 유금용, 김연수, 두강언, 임미옥, 서영희, 조은서, 황다연, 박지윤, 진효린, 김미옥, 윤오주, 윤미숙, 이승천, 김학승, 김현준, 박찬일, 황보선, 구미정

도란도란봉사대: 재능기부(공연)

송태영, 김학수, 윤석규, 김경자, 박종희, 한미란, 김훈자, 허장록, 김수진, 김영수

단체

사랑나눔봉사단: 중식봉사

이종서 단장, 김연숙, 전성우, 박연학, 이병섭, 서금자, 김지연, 최창희, 윤하늘, 김영배, 천경호, 이기현, 이하은, 전서현, 이빛나, 정연화, 전지현, 황정희, 박남수, 천경호, 최종성, 박연희, 이은주, 박미숙

상정중 우리들봉사단: 음식만들기·이용자프로그램 지원

신미옥 단장, 나승진, 박상은, 안형진, 정수연, 김이수, 유나경, 김효주, 임정연, 김지수, 김지우, 강건주, 이은서, 김형진, 이지원, 김민고, 강건희, 이윤진, 윤수현, 조영순, 최제옥, 김효연, 정미자, 이인숙, 김영재, 김경준, 박미영, 임자영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태양봉사단: 중식봉사

이명식 회장, 오현주, 이영호, 김춘숙, 나영복, 김영분, 심명임, 김은심, 백숙림, 김정은, 김미정, 김정엽, 신연섭, 이정임, 강용순, 황세동

DK도시개발 봉사단: 시설 환경정리 지원

김란은, 조재민, 김형남, 김효종, 배성철, 이정완, 박영찬, 김호중, 김진성, 김대중, 한명희, 이성현, 이유성, 최은희, 황민선, 안선정, 박종현, 김용관

부평구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시설을 유지관리

김병락 회장, 강원희, 김나미, 김명수, 김미숙, 남명숙, 김병하, 김영미, 김예은, 김종숙, 남형우, 손정희, 심병길, 이동철, 이상기, 이영근, 이인자, 정윤희

동그라미봉사단: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오현주 회장, 김오분, 임충휴, 정나나, 이재웅, 김숙영, 나태현, 이해원, 김인선, 최계한, 장경미, 문희주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16.01.01~2016.12.31)

세입		세출	
전년도 이월금	30,267,917	공공요금 등 사무비	20,214,782
지정후원금	14,941,600	시설감정비 (공동모금회직수령권 고시(정후원금))	9,028,800
		시설장비유지비	1,783,050
비지정후원금	31,901,310	난방비 등 운영비	8,929,720
법인전입금 (후원금)	10,750,000	이용자 재활 사업비	21,717,300
잡수입	79,534	잡지출 및 기타	2,628
		처기년도이월금	26,264,081
합계	87,940,361	합계	87,940,361

▣ 2016년 결산보고

세입			세출		
관	항	예산액	관	항	예산액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1,020,027,020	사무비	인건비	812,109,65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48,430,000	사무비	업무추진비	235,000
전입금	전입금	11,650,000	사무비	운영비	74,721,652
이월금	이월금	33,382,791	재산조성비	시설비	60,841,850
잡수입	잡수입	15,076,760	사업비	운영비	96,023,760
			사업비	사업비	39,034,670
			사업비	사업비	39,012,380
			집지출	집지출	10,826,906
			반납금	반납금	15,722
			차기년도 이월금	차기년도 이월금	20,899
			차기년도 이월금	차기년도 이월금	34,757,361
세입 합계		1,128,566,571	1,127,331,300	세출 합계	1,128,566,571
					1,127,331,300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제되는 제도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민은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협은행 301-0072-5929-41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모금함 설치방법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사무용품 (A4용지, 파일, 각종 문구류)

의료용품 (의약품 및 헬체어, 보조기구)

교육기자재 (학습지원을 위한 물품)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BUS/버스

좌석버스 : 동암북부역 하자 103번, 약사사 입구 하차 111번

마을버스 : 531, 533, 535-1, 536, 537, 538(남부역하차)

시내버스 : 2, 30, 34, 45번(십정2동주민센터 입구,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남부역 1번출구 하차

인천선 : 간석오거리 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 3번출구 하차



별마을이야기 2017년 첫 번째 호 (통권18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김기철, 권소진, 유성우, 장연희, 조명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